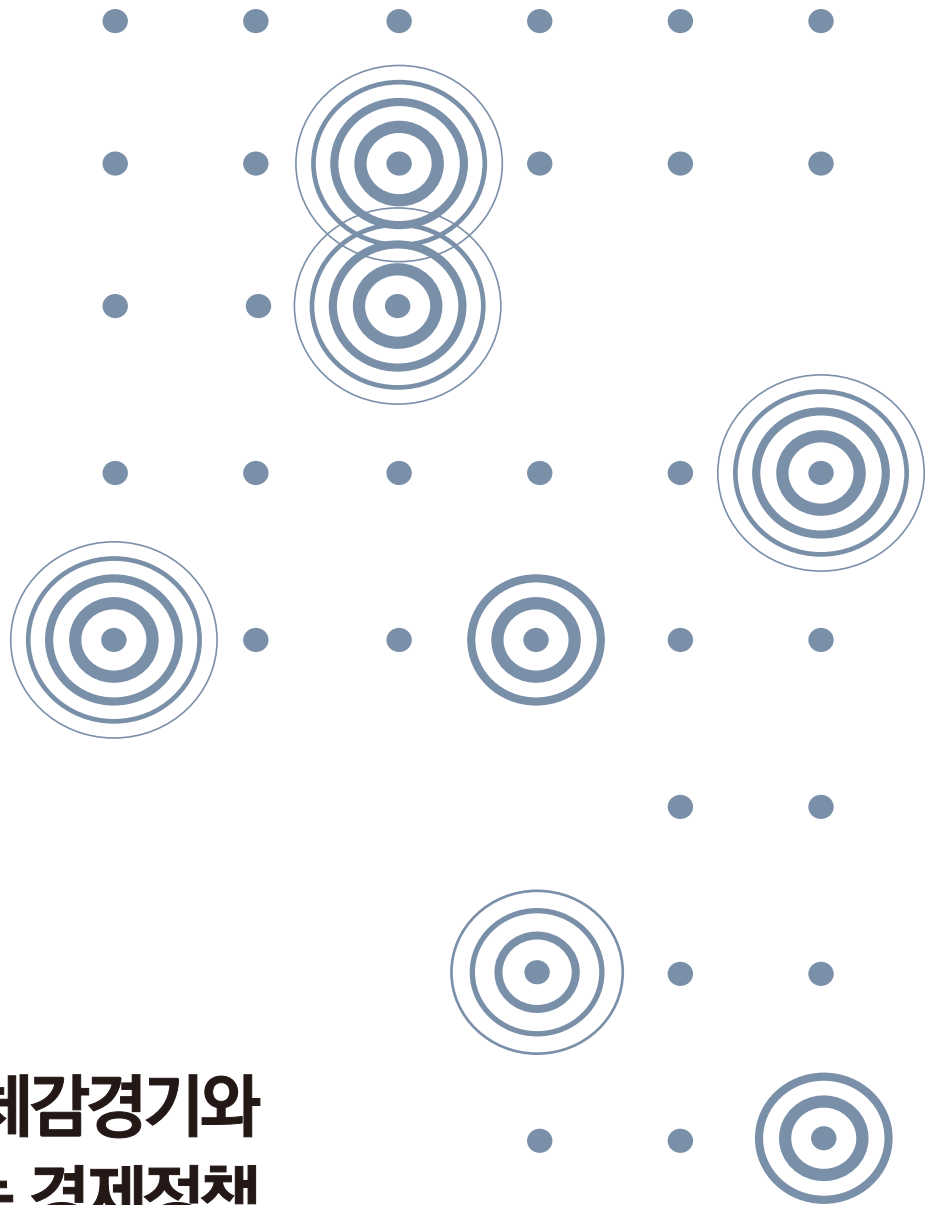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27호 2021. 6. 28



—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에 바라는 경제정책

오은주

연구위원

유인혜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27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에 바라는 경제정책

발행인 유기영

편집인 양재섭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1년 6월 28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에 바라는 경제정책

오은주 연구위원
02-2149-1037
ejoh@si.re.kr

유인혜 연구원
02-2149-1073
inhye215@si.re.kr

요약	3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Ⅱ.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서울시에 바라는 경제정책	18
부록: 2021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22

요약

서울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지수는 기저효과로 모두 상승

2021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5.5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다.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7% 상승한 81.9를 나타내면서 2018년 10월 (15.5%) 이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0%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백화점 판매액지수」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도 2020년 4월 대비 각각 36.8%, 0.2% 증가하였다. 2021년 4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505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하였고,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1.6% 증가한 91만 5천 명을 기록하였다.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 대비 상승하며 90선 회복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2/4분기 92.9로 전 분기 대비 3.9p 상승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76.6으로 전 분기 대비 3.7p 상승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8p 하락한 95.2로 나타났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0.2p 오른 56.8이었고,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6.5로 전 분기와 같았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0.3으로 전 분기 대비 2.3p 상승하였고,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1.7p 올라 87.3을 나타냈다.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와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각각 4.3p, 2.6p 상승하였다. 「순자산지수」와 「물가예상지수」는 전 분기보다 각각 0.3p, 4.0p 하락하였고, 「고용 상황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4.0p 상승하였다.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경제정책 중 '생활물가 안정' 시급,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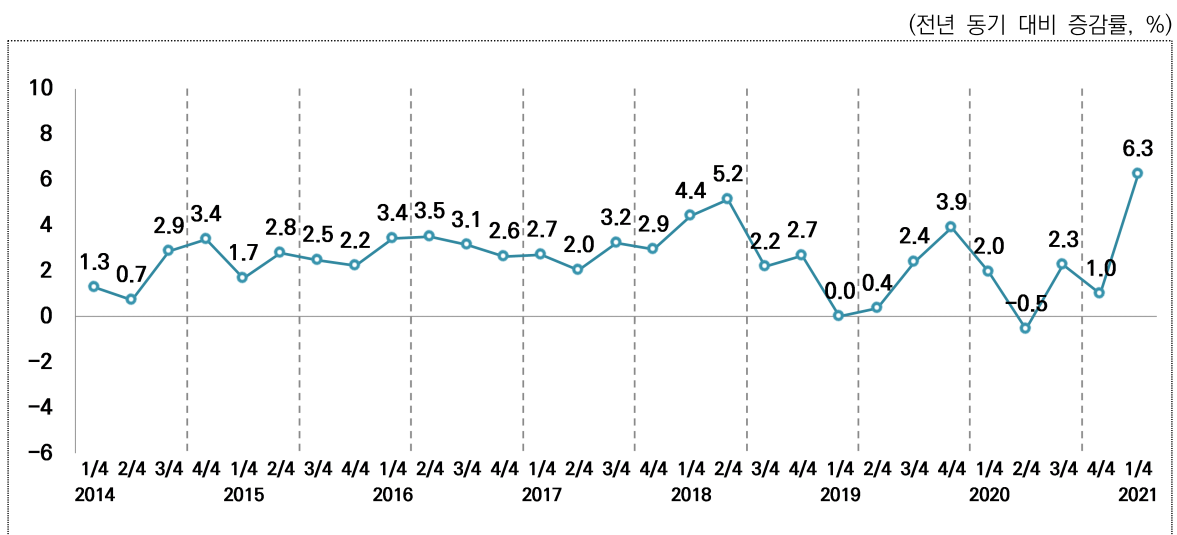
본인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서울시민의 13.8%만이 '만족'하고 있었고, 41.3%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상승했다'고 응답한 6.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가장 시급한 1순위 경제정책으로는 '생활물가 안정'(38.5%)이 꼽혔고, 중요하게 수행해줬으면 하는 경제정책으로는 '코로나 방역'(4.38 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4.33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민의 23.3%가 새로운 서울시장 임기 동안 민생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년 후 서울시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39.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I 서울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지수 모두 기저효과로 상승

2021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지수 모두 상승

- 2021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5.5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
 - 1/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고, 전 분기(1.0%)보다 상승폭 크게 확대
 - 업종별로는 전 분기에 이어 ‘금융 및 보험업’(22.5%)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그다음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6%), ‘정보통신업’(3.9%) 등의 순으로 증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36.4%를 기록해 전 분기(-50.4%)와 비교하여 하락 폭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 및 창고업’(-8.8%), ‘숙박 및 음식점업’(-8.6%) 등의 순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2021년 4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81.9로 전년 동월 대비 12.7% 상승
 - 2021년 4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2.7% 상승한 81.9를 기록하면서 2018년 10월(15.5%) 이래 상승폭 최고치 기록
 - 「제조업생산지수」의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이너스를 이어왔으나,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0.9%를 나타내며 상승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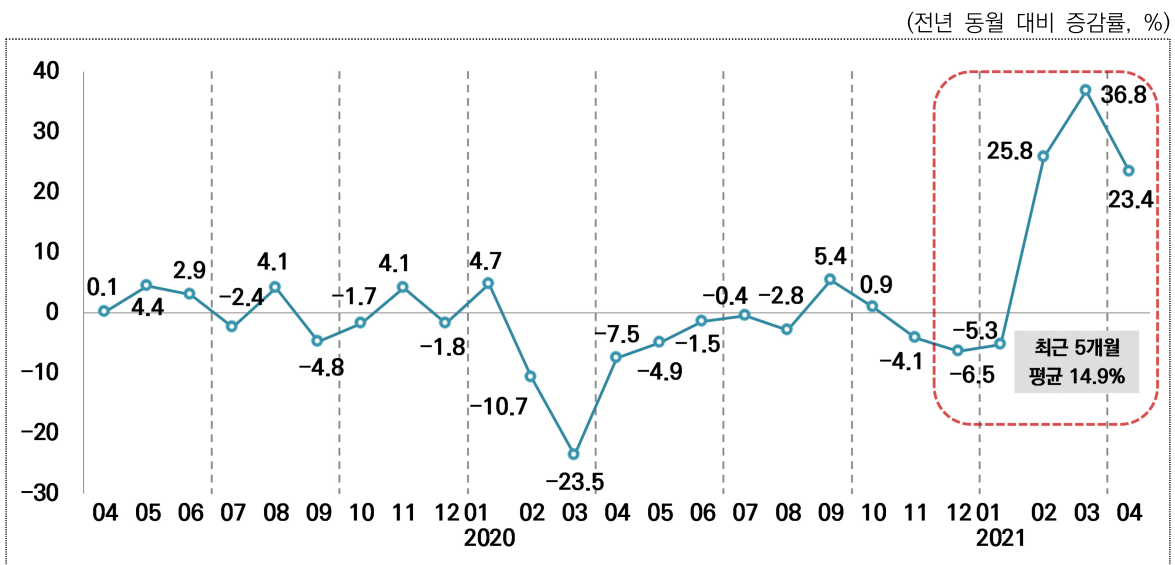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1) 2019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음.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큰 폭 상승

- 2021년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²⁾는 108.7로 전년 동월 대비 23.4% 상승
 -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6.8%의 큰 상승폭을 기록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도 14.9%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
- 부문별로 보면, 2021년 4월 중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크게 증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소폭 상승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19.3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8%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도 22.4%를 기록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89.9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0.2%로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 5개월간 평균 증감률은 3.9% 수준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3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크게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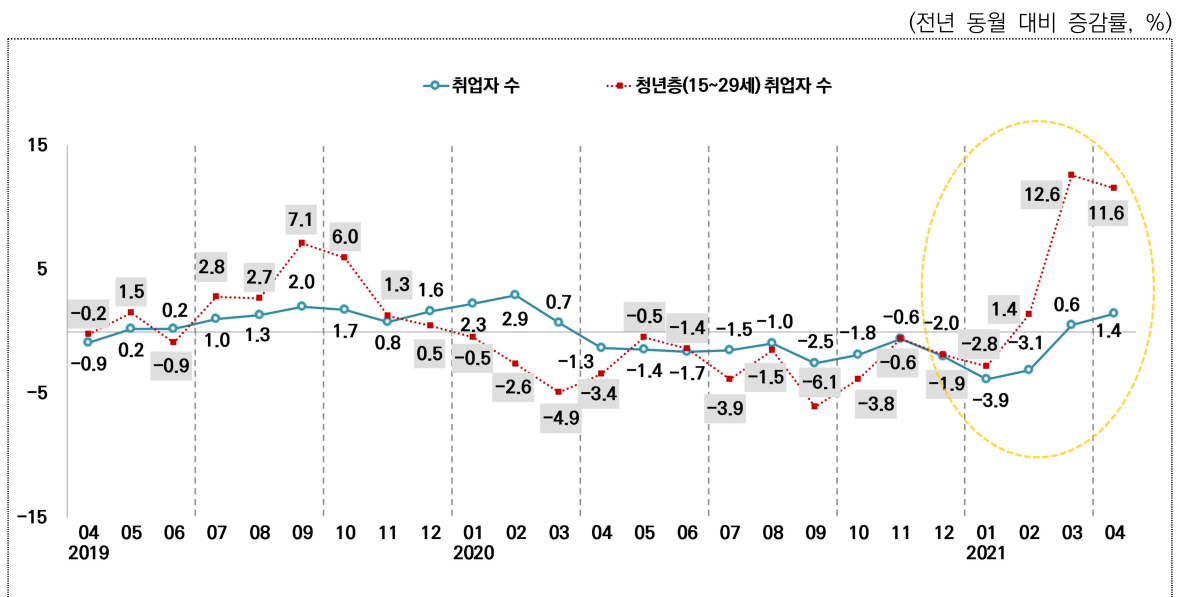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울렛 등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울렛이 제외되었음

전년 동월 대비 전체·청년층 취업자 모두 상승, 청년층 취업자 수는 조사 이래 최대

- 2021년 4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³⁾는 전년 동월(498만 6천 명)보다 1.4% 증가한 505만 7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 전체 「취업자 수」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3월부터 증가세(0.6%)로 전환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1.4%로 여전히 마이너스
- 2021년 4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2만 명)보다 11.6% 증가한 91만 5천 명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올해 3월에 92만 1천 명을 기록하며 2016년 10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90만 명을 돌파했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올해 3월 12.6%, 4월 11.6%로 최대치를 기록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4.2%로 조사
- 전월 대비 2021년 4월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
 - 2021년 4월 전체 「취업자 수」는 505만 7천 명으로 전월 504만 5천 명보다 1만 2천 명이 증가했고,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월(92만 1천 명)보다 6천 명 줄어든 91만 5천 명으로 조사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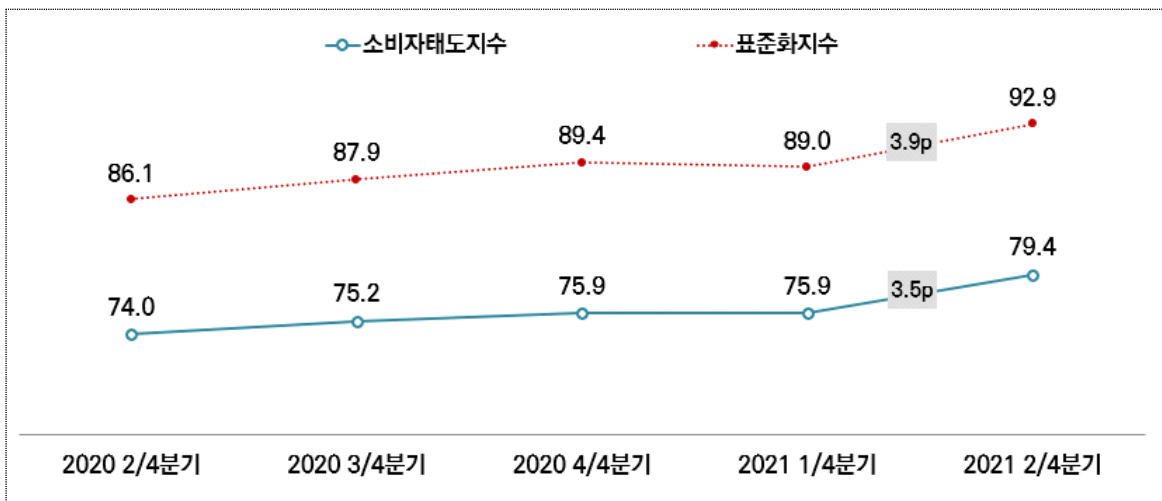
3)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I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90선 회복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상승하며 92.9 기록

- 2021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⁴⁾ 기준 92.9로 전 분기 대비 3.9p 상승
 - 「소비자태도지수」의 표준화지수는 전 분기 대비 3.9p 상승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90선을 회복
 - 연 가구소득별로는 전 소득계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400만 원 미만이 7.0p 올라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가 상승했으며, 그 중 30대 이하가 전 분기 대비 4.3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2/4분기 이후 올해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는 긍정적으로 예측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1/4분기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90선 수준으로 회복
 - 백신 보급 확산과 더불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강조한 만큼 2/4분기 이후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경기회복이 뚜렷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우려가 존재하고, 하방 리스크(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요인도 여전히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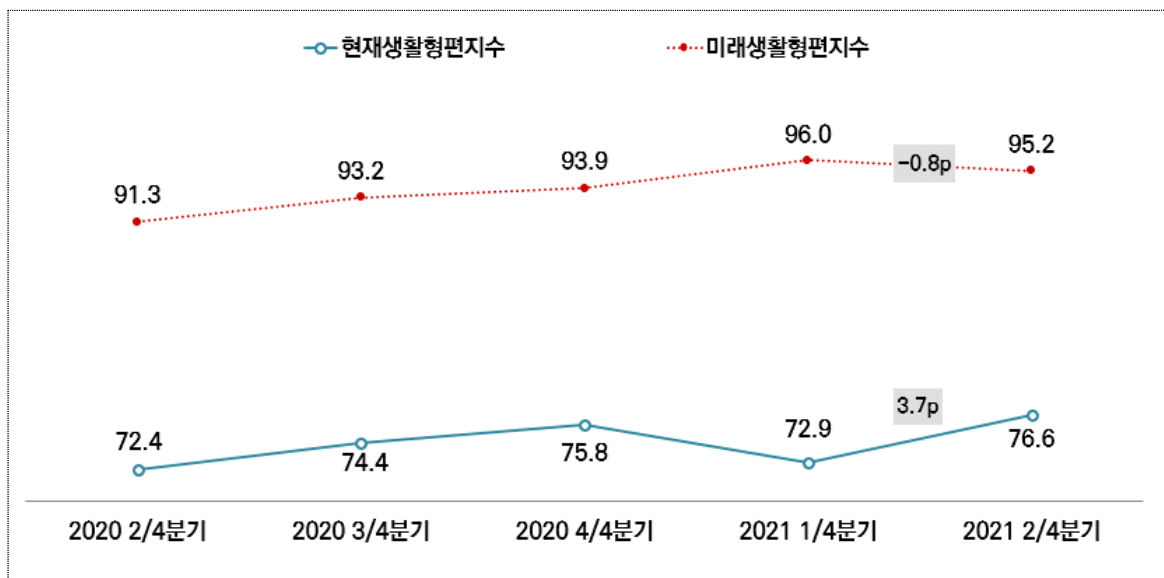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함

전 분기 대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상승,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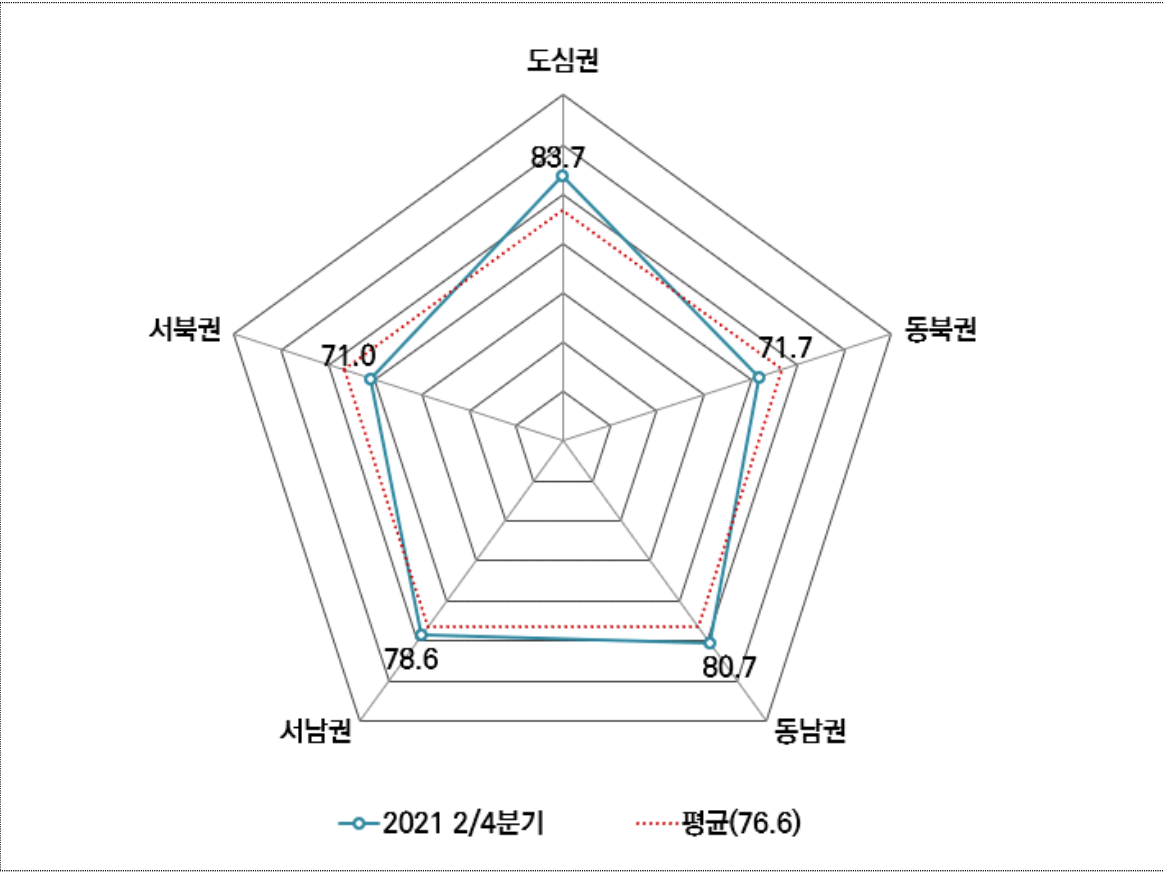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3.7p 상승한 76.6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8p 하락한 95.2를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76.6으로 전 분기 대비 3.7p 상승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5.2로 4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
 - 소득계층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연 가구소득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의 상승 폭이 6.6p로 가장 컸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연 가구소득 2,400~3,600만 원 미만에서 3.5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는 50대에서 「현재생활형편지수」가 전 분기 대비 4.6p 오르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60대는 「미래생활형편지수」에서 3.9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는 ‘가계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이유로 ‘가계소득 감소’가 3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물가 상승’(21.8%), ‘경기 불황’(11.9%), ‘지출비용 증가 예정’(8.7%) 등의 순으로 응답
 - 동일 질문으로 2020년 2/4분기 결과와 비교하면 ‘가계소득 감소’ 비중은 47.2%에서 39.8%로 하락한 반면, ‘물가 상승’ 비중은 11.2%에서 21.8%로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가계소득 감소’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물가 상승’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물가 상승’ 비율이 28.2%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연령대는 ‘가계소득 감소’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을 비롯한 강남권이 평균 이상, 강북권은 평균 이하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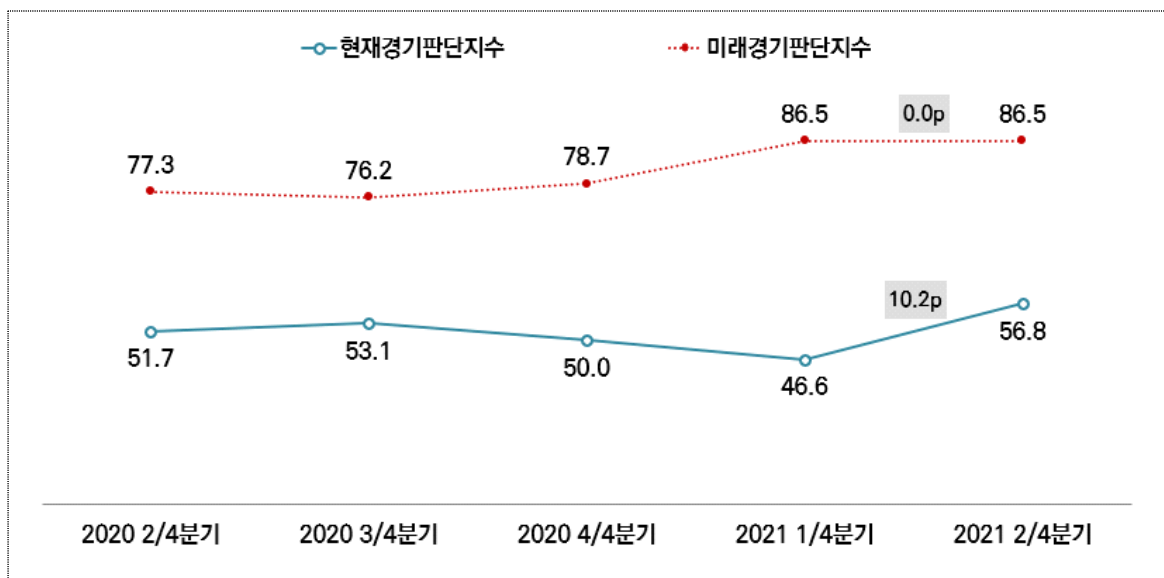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의 평균은 76.6이며, 도심권이 가장 높은 수준
 - 도심권(83.7), 동남권(80.7), 서남권(78.6) 등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며, 동북권(71.7)과 서북권(71.0)은 평균 이하로 조사
- 2021년 2/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에서 전 분기 대비 도심권은 11.8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서북권은 2.3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도심권이 11.8p 상승한 가운데 서남권과 동남권도 각각 6.7p, 6.1p 상승
 - 반면, 서북권(-2.3p)과 동북권(-0.9p)은 전 분기 대비 하락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전 분기 대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크게 상승, 미래경기판단지수는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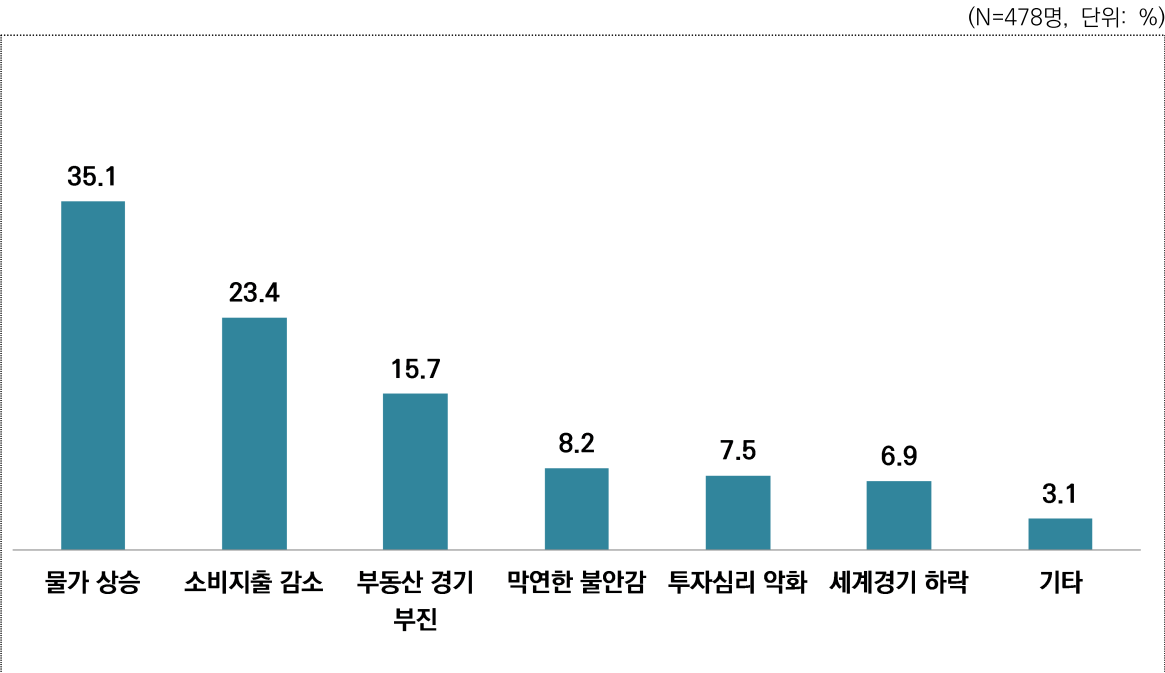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6.8로 전 분기 대비 10.2p 상승
 - 2분기 연속 하락을 이어오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21년 2/4분기에 10.2p 오르면서 상승으로 전환
 - 연 가구소득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소득계층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7,200만 원 이상 가구가 13.7p,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13.2p 올라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
 - 모든 연령대에서 「현재경기판단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가 14.2p 올라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상승 폭 기록
- 2021년 2/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6.5로 전 분기와 동일
 - 2021년 2/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80대 수준을 회복한 이후 변동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
 - 연 가구소득별 「미래경기판단지수」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7.2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한 반면,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5.8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 「미래경기판단지수」는 30대 이하에서 1.2p 상승하여 가장 많이 올랐으며, 60대가 3.4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과 ‘소비지출 감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⁵⁾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물가 상승’과 ‘소비지출 감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
 - ‘물가 상승’이 35.1%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소비지출 감소’(23.4%), ‘부동산 경기 부진’(15.7%) 순으로 조사
- 소득수준과 연령대 전체에서 ‘물가 상승’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1순위
 - 연 가구소득별로는 전 소득계층에서 ‘물가 상승’이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경기 악화의 주된 이유로 지목되었으며, 그다음은 ‘소비지출 감소’를 선정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이 ‘물가 상승’을 향후 경기 악화의 첫 번째 이유로 지목
- 2021년 5월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7%)과 전년 동월(0.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1년 1월 0.5% → 2월 0.9% → 3월 1.1% → 4월 1.7% → 5월 1.9%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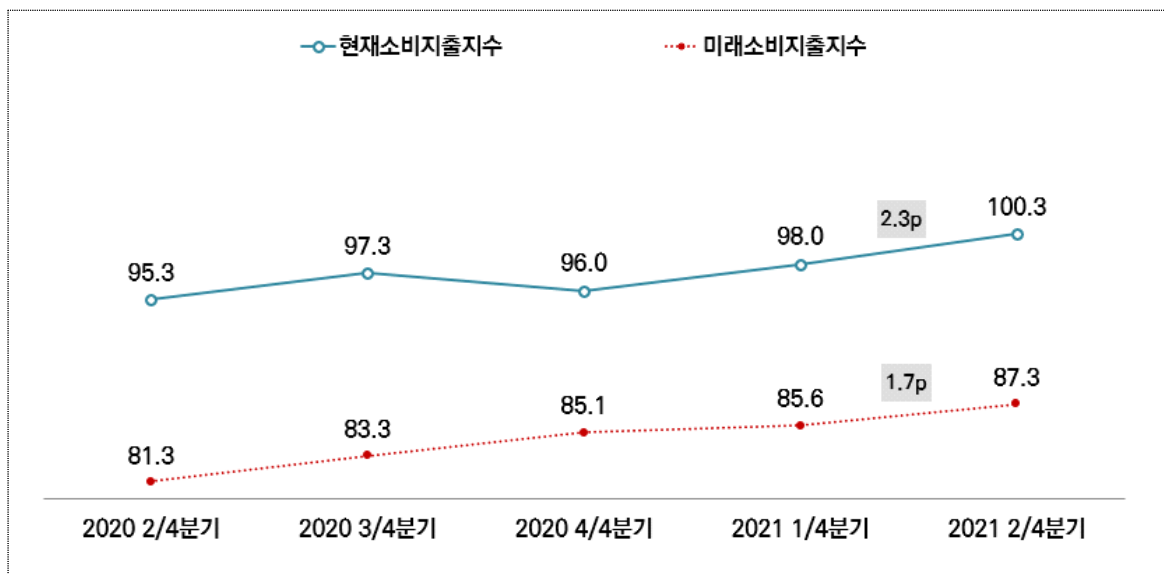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5) 서울시민의 22.5%(270명)는 1년 후 ‘경기 호전’을 전망했고, 39.8%(478명)는 ‘경기 악화’를 전망하였으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

6)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등락률(KOSIS 재인용)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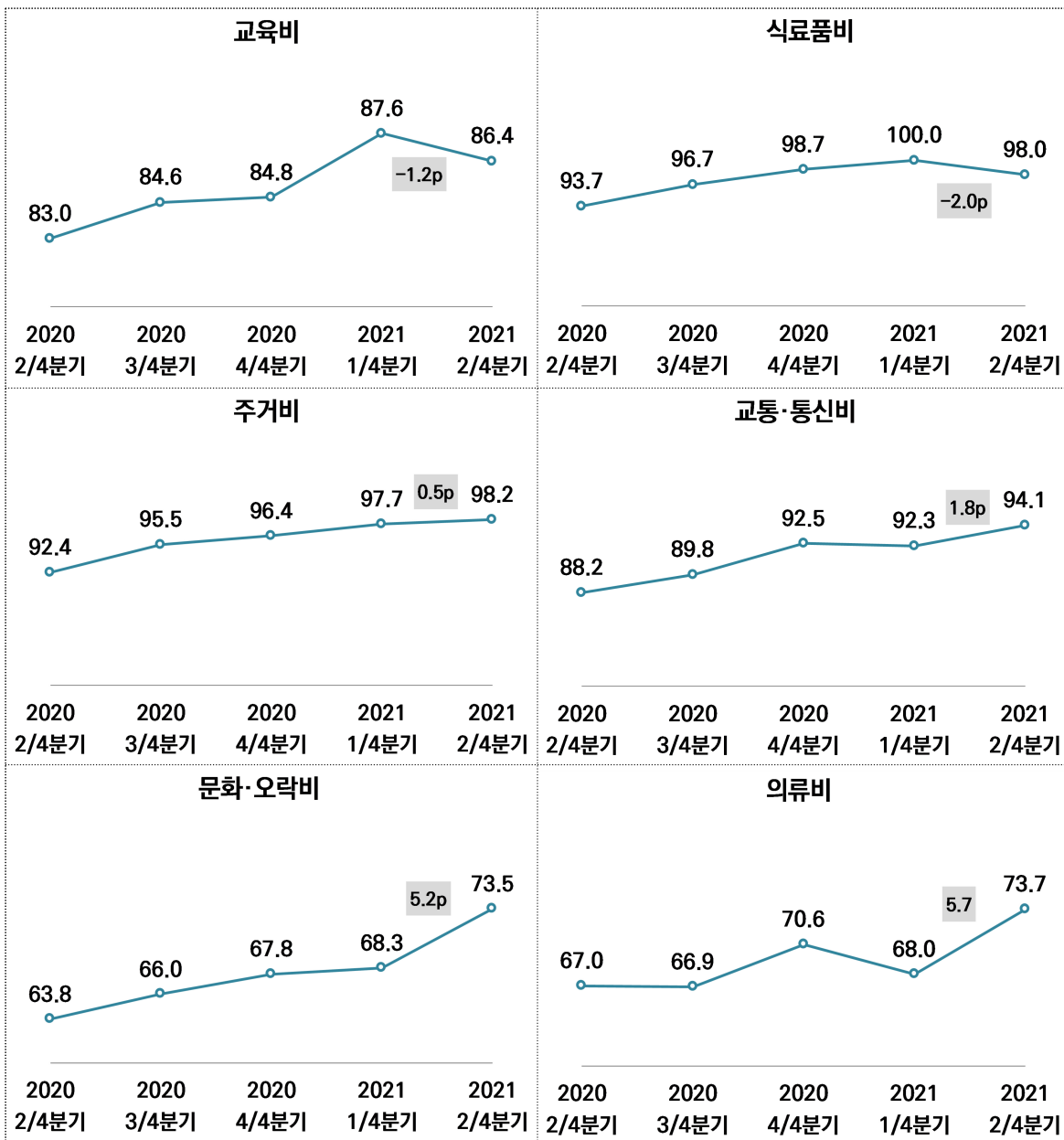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0.3으로 전 분기 대비 2.3p 상승
 - 2021년 2/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100.3을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의 「현재소비지출지수」가 전 분기 대비 9.0p 올라 가장 많이 상승
 - 연령별 「현재소비지출지수」는 40대가 4.2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2021년 2/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7.3으로 전 분기보다 1.7p 상승
 - 2021년 2/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최근 4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면서 87.3을 기록
 - 연 가구소득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4.2p 올라 가장 많이 상승
 - 연령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50대가 3.7p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의류비와 문화·오락비가 눈에 띄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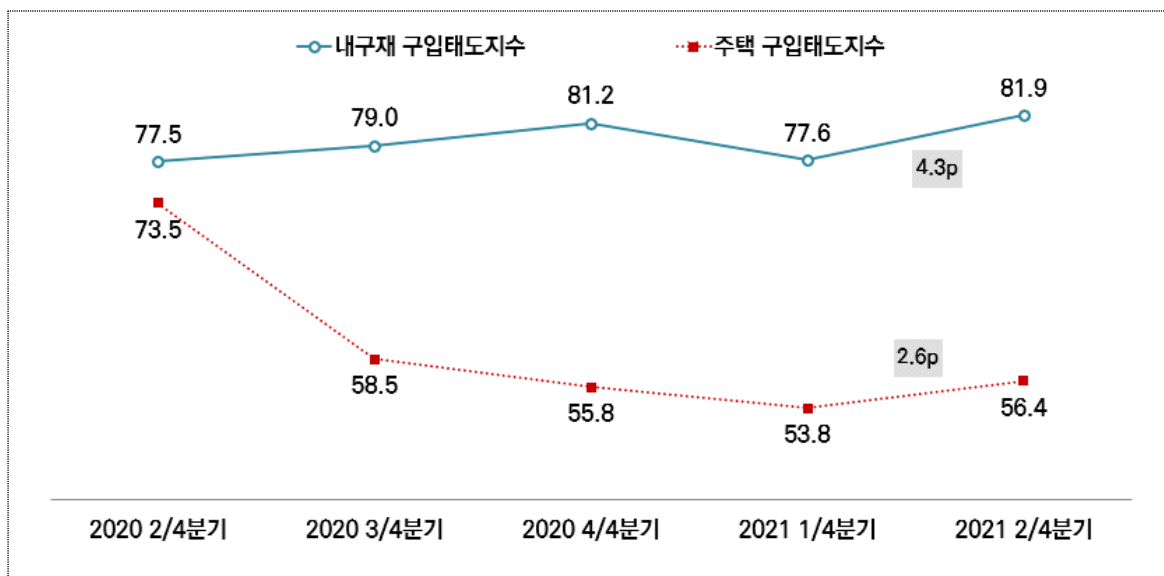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의류비'와 '문화·오락비'가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의류비' 지수가 전 분기 대비 5.7p 올라 전 품목 중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문화·오락비'(5.2p), '교통·통신비'(1.8p), '주거비'(0.5p) 순
 - '식료품비' 지수가 전 분기 대비 2.0p 감소하였고, '교육비'는 1.2p 하락
- '주거비' 지수가 가장 높게 조사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주거비'가 98.2로 가장 높은 반면, '문화·오락비'가 7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의사, 주택 구입의사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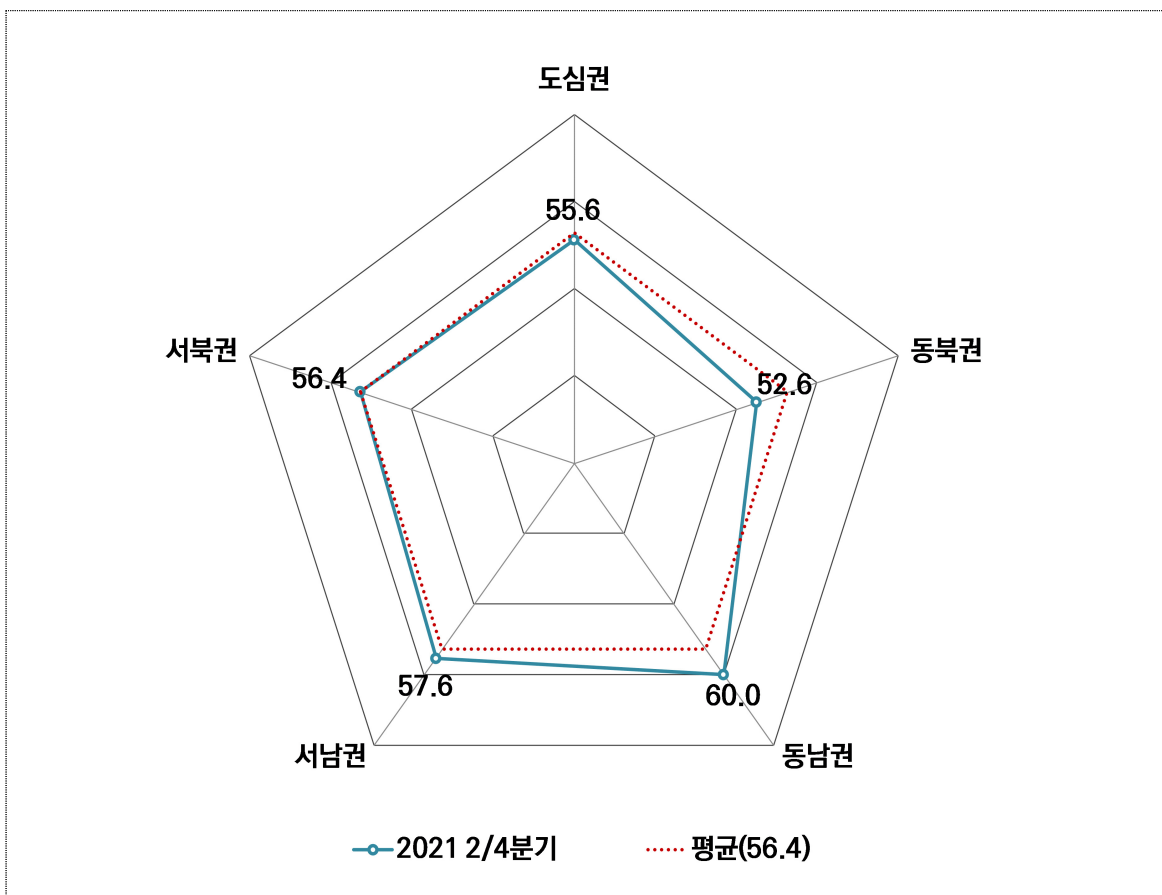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4.3p 올라 81.9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는 전 소득계층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12.6p 올라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5.8p 오르면서 가장 높게 상승
- 2021년 2/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6.4로 전 분기 대비 2.6p 상승
 - 2021년 2/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56.4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400만 원 미만 가구(-5.3p)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에서 상승했으며,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의 상승 폭이 5.6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연령대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40대가 7.3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2021년 5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13.3으로 소폭 상승: 2021년 1월 111.5 → 2월 112.1 → 3월 112.5 → 4월 112.9 → 5월 113.3⁷⁾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7)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KOSIS,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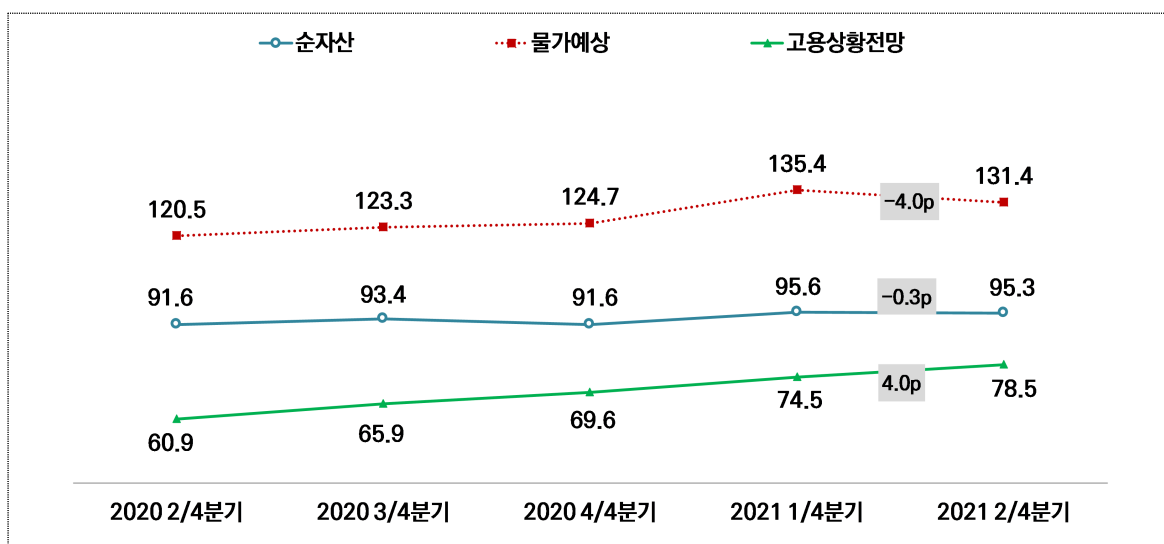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동남권이 가장 높은 편
 -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가장 높은 권역은 동남권(60.0)이며, 가장 낮은 권역은 동북권(52.6)인 것으로 조사
 - 서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7.6으로 전 분기 대비 4.9p 올라 전 권역에서 가장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동남권(4.8p)과 동북권(2.3p) 순으로 상승
 - 도심권과 서북권은 전 분기 대비 0.9p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와 물가예상지수는 하락,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상승

- 2021년 2/4분기 「순자산지수」는 95.3으로 전 분기 대비 0.3p 하락
 -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한 이유로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채가 늘었다’(20.7%), ‘지출이 늘었다’(16.3%) 순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소득이 줄었다’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와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소득이 줄었다’가 50% 이상을 차지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소득이 줄었다’를 가계 순자산의 주된 이유로 지목하고 있으며, 특히 60대는 60%를 상회
- 2021년 2/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31.4로 전 분기 대비 4.0p 하락
 - 「물가예상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2021년 2/4분기에 전 분기 대비 4.0p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9.0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전 분기 대비 5.5p 내려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2021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8.5로 전 분기보다 4.0p 상승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21년 2/4분기에 전 분기 대비 4.0p 오른 78.5를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그 중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6.2p 올라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6.7p로 가장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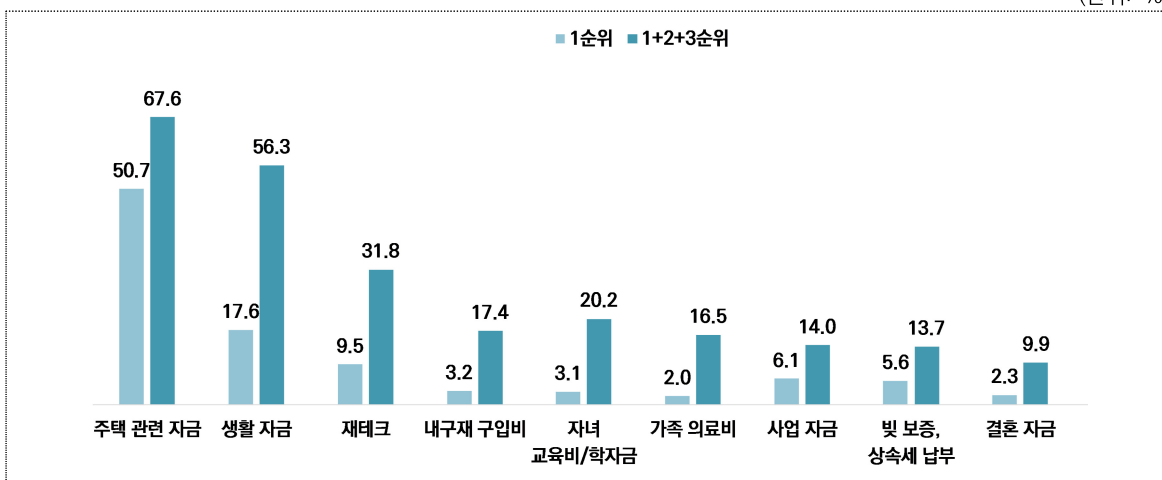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

- 2021년 2/4분기에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54.6%로 전 분기 대비 1.4%p 감소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와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특히,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와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는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3.8%, 60.9%로 매우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40대가 56.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30대 이하(56.1%), 50대(53.7%), 60대(50.2%) 순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19.5%로 전 분기 (19.1%) 대비 0.4%p 증가⁸⁾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1.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 (33.7%), '상환 안 함'(4.7%)의 순으로 나타나 전 분기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1순위 기준으로 '주택 관련 자금'(50.7%)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17.6%), '재테크'(9.5%), '사업 자금'(6.1%), '빚 보증, 상속세 납부'(5.6%) 순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2,4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주택 관련 자금'(40.8%)의 비중 대비 '생활 자금'(28.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으며, 특히 40대가 61.2%로 가장 높게 조사
 - 1~3순위 기준 역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7.6%, 56.3%로 가장 높았으며, '재테크'(31.8%)와 '자녀 교육비/학자금'(20.2%)도 높은 수준

(단위: %)



[그림 14]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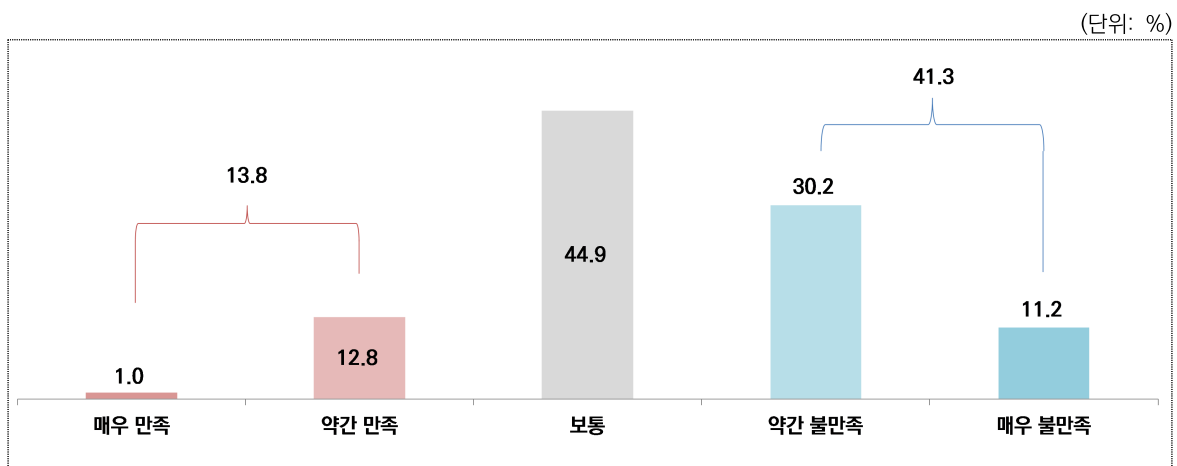
8)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함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서울시에 바라는 경제정책

Ⅰ ‘생활물가 안정’이 시급,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중요

서울시민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 저조,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락

- 서울시민의 13.8%만이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만족’, 41.3%는 ‘불만족’ 응답
 - 서울시민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1.0%+약간 만족 12.8%)이라는 응답은 13.8%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약간 불만족 30.2%+매우 불만족 11.2%)은 41.3%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불만족’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2,400만 원 미만 가구(53.5%)와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52.7%)에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조사
 -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중 30대 이하가 4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하락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승했다’(매우 상승 0.3%+상승 6.1%)라는 응답이 6.3%로 나타났으며, ‘하락했다’(하락 27.8%+매우 하락 6.3%)라는 응답은 34.2%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41.9%)와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41.4%)에서 ‘하락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60대 중 44.4%, 50대 중 36.2%, 40대 중 31.7%, 30대 미만 중 29.6%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하락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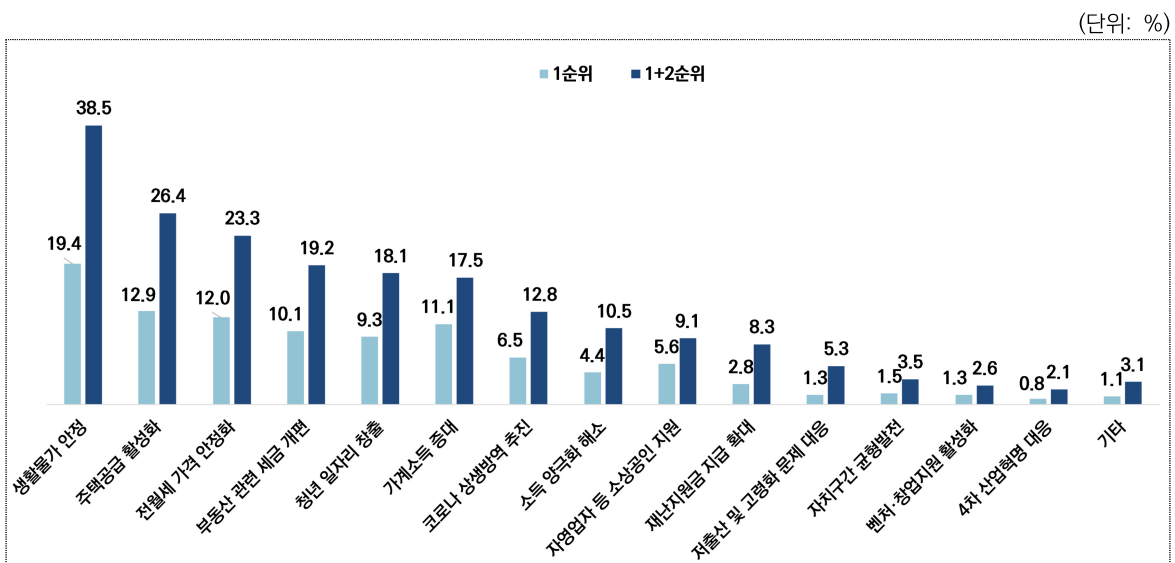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시민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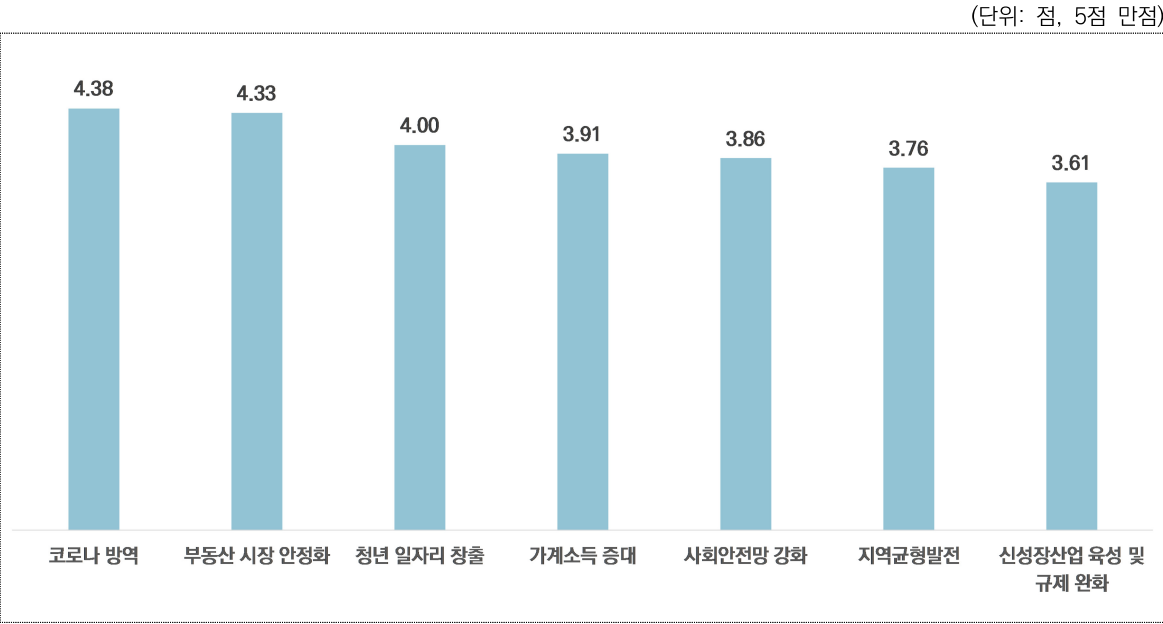
자료: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 대상 설문조사 중 1,200명 응답

민생경제 관련 ‘생활물가 안정’ 시급, 중요도는 ‘코로나 방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순

- 신임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시급한 경제정책으로 ‘생활물가 안정’이 1순위 차지
 - 서울시 전반에 걸쳐 신임 서울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2순위 기준으로 ‘생활물가 안정’이 38.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주택공급 활성화’(26.4%), ‘전월세 가격 안정화’(23.3%),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19.2%) 등의 순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생활물가 안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 안정화’(30.2%)와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20.2%)에 대한 바람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대별에서도 전 연령층에서 ‘생활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30대 이하의 상대적으로 ‘주택공급 활성화’(32.5%)와 ‘청년 일자리 창출’(23.4%)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중요 정책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
 - 서울시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임 서울시장이 중요하게 수행해줬으면 하는 경제정책으로는 ‘코로나 방역’(4.38)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4.33), ‘청년 일자리 창출’(4.00) 등의 순으로 조사



[그림 16] 서울시장이 시급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경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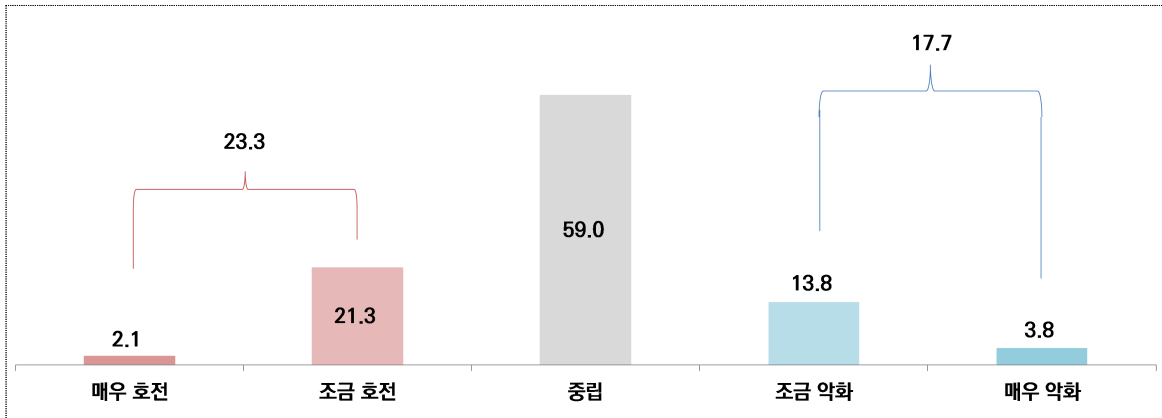


[그림 17] 서울시장이 중요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경제정책

새로운 서울시장 임기 동안 민생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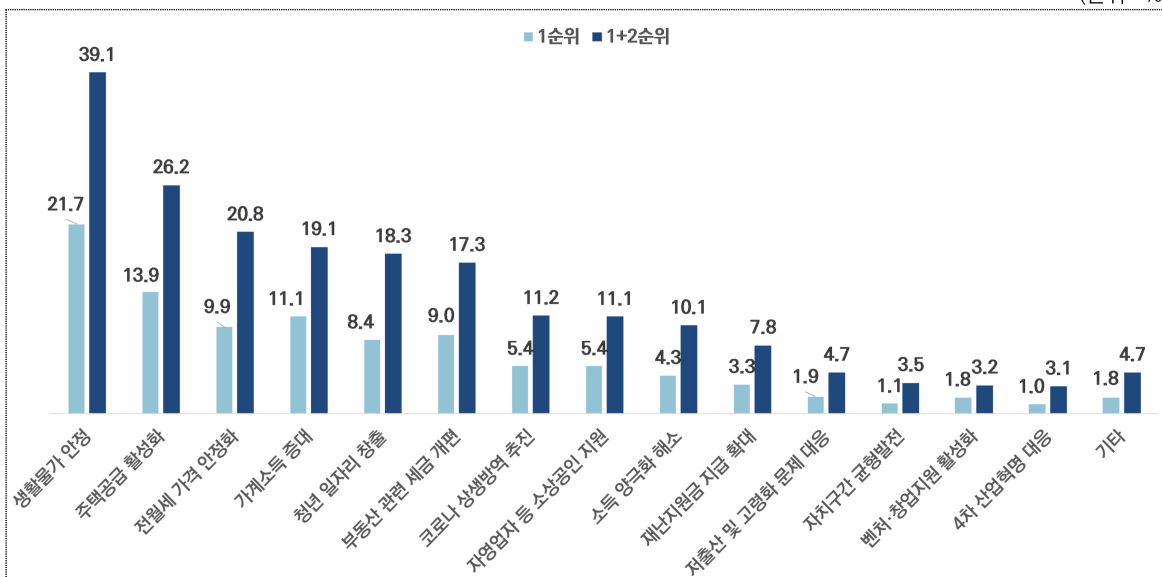
- 서울시민의 23.3%가 새로운 서울시장 임기 동안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현재와 비교하여 새로운 서울시장 임기 동안 민생경제가 ‘호전’(매우 호전 2.1%+조금 호전 21.3%)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이 23.3%로, ‘악화’(조금 악화 13.8%+매우 악화 3.8%)를 응답한 17.7%보다 높게 조사
- 1년 후 민생경제 호전을 위해 ‘생활물가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현재와 비교하여 1년 후 서울시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서울시장이 수행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생활물가 안정’이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그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주택공급 활성화’(26.2%)와 ‘전·월세 가격 안정화’(20.8%)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1~2순위 기준)

(단위: %)



[그림 18] 현재 대비 서울시장 임기 동안 민생경제 호전 여부

(단위: %)



[그림 19] 현재 대비 1년 후 민생경제 호전을 위해 중요한 경제정책

부록: 2021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21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2로 전월 대비 3.0p 상승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20년 2/4분기	86.1	72.4	91.3	51.7	77.3	77.5	73.5
2020년 3/4분기	87.9	74.4	93.2	53.1	76.2	79.0	58.5
2020년 4/4분기	89.4	75.8	93.9	50.0	78.7	81.2	55.8
2021년 1/4분기	89.0	72.9	96.0	46.6	86.5	77.6	53.8
2021년 2/4분기	92.9	76.6	95.2	56.8	86.5	81.9	56.4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20년 2/4분기	95.3	81.3	91.6	60.9	120.5
2020년 3/4분기	97.3	83.3	93.4	65.9	123.3
2020년 4/4분기	96.0	85.1	91.6	69.6	124.7
2021년 1/4분기	98.0	85.6	95.6	74.5	135.4
2021년 2/4분기	100.3	87.3	95.3	78.5	131.4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p$ 임 (2021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21년 5월 3일~5월 13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